

스파오, 27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서 '블랙세일'

이랜드의 패션 SPA 브랜드 스파오가 27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블랙세일'을 진행한다. 올 겨울 핵심 아이템인 숏패딩,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발열내의 월테크, 토이스토리 등 협업 상품이 대표 아이템이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대상으로 7만 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각각 7000원, 1만 원 할인 쿠폰을 준다. 정정욱 기자



자동차업계가 '르노 조에'를 주목하는 이유

합리적 가격·안전성도 탄탄...도심주행에 딱!

유럽서 테슬라와 선두권 경쟁 치열 3세대 진화로 안정화...리스크 적어 완충 시 309km 주행...제로백 9.5초 안전편의사양, 모든 트림에 적용



▲르노 조에 인테리어.



르노의 전기차 조에(ZOÉ)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파워와 충실한 안전 사양 등을 갖춰 근거리 도심형 이동 수단인 '시티 커뮤터'로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

전기차 개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업계에선 전기차 시장이 해마다 20% 이상 초고속 성장하는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30년 후반엔 내연기관차 시장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중단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노르웨이로 그 시기는 2025년이다. 이어서 독일·이스라엘·인도가 2030년, 영국이 2035년, 프랑스·스페인·싱가포르·대만은 2040년이면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발맞춰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동화 계획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이미 파생 모델이 아닌 순수 전기차 서브 브랜드와 모델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12개, 포드는 16개, FCA와 다임러가 10개의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GM은 2023년까지 20개 이상,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까지 50개 이상의 전기차 출시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바꾸고 전기차 및 파생 전기차들을 포함해 2025년까지 12개 이상의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르노 조에 유럽에서 인기... 최적의 도심형 전기차로 주목

2019년 기업별 전기차 판매순위에는 테슬라가 37만5752대, 르노·닛산이 20만 4569대, BYD가 19만7146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에선 현재 테슬라 모델3와 르노 조에가 치열하게 선두권을 다투고 있다. 조에는 지난 8월 국내에도 출시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입차라 국내 출시가 늦어진 점, 현대·기아차와 테슬라의 시장 선점 등의 이유로 해외 시장에서처럼 드라마틱한 판매량 증가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조에를 매우 주목하고 있다. 다른 제조사들이 부러워라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금, 2012년생인 조에는 이미 3세대로 진화했다. 기존 내연기관차와 별 차이 없는 스타일과 운전 감각을 만들었고, 지나온 시간만큼 안정화돼 리스크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국내에선 르노삼성이 구축해 놓은 AS 인프라를 국산차처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다른 나라보다 더욱 유리하다.

차의 제원을 살펴보면 근거리 도심형 이동 수단인 '시티 커뮤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에는

54.5kWh 용량의 Z.E.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국내에서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 인장은 309km(WLTP 기준 395km)를 받았다. 50kw급 DC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30분 충전으로 약 150km를 달릴 수 있다. Z.E. 배터리는 8년 혹은 16만km까지 용량의 70%를 보증한다.

파워도 도심 주행에 최적화 되어 있다. 조에는 100kw급 최신 R245 모터를 장착해 최고출력 136마력과 최대토크 25kg·m의 힘을 뽐내며, 정지 상태에서 50km/h까지 3.6초에, 100km/h까지 9.5초 만에 돌파한다.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모터와 배터리 패키지가 최적화되어 있어, 낮은 무게중심을 통한 다이내믹한 주행 감성과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다.

안전 사양도 충실하다. 르노 조에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 오토매틱 하이빔(AHL) 등 주행 안전을 위한 ADAS 기능이 모든 트림에 적용됐으며 인텐스(INTENS) 트림과 인텐스 에코(INTENS ECO) 트림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과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BPA)도 추가로 적용됐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가상 엔진 사운

르노 조에 주요 제원	
전장(mm)	4090
전폭(mm)	1730
전고(mm)	1560
축거(mm)	2590
윤거 전/후(mm)	1510/1510
공차중량(kg)	1545
모터 최고출력(ps)	136 (100kW)
모터 최대토크(kg·m)	25 (245 Nm)
배터리 형식	리튬 이온
배터리 용량(kWh)	54.5
1회 충전 주행거리(km)	309
최고속도(km/h)	140
*실 가용 용량: 52kWh	

드 시스템인 'Z.E. 보이스'는 3가지 사운드를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르노 조에는 3개의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제(ZEN) 3995만 원, 인텐스 에코(INTENS ECO) 4245만 원, 인텐스(INTENS) 4395만 원이다. 환경부의 국고 보조금 736만 원과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적용 시 서울시의 경우 최저 2809만 원, 제주도의 경우 최저 2759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하나금융·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선두주자는 하나금융이다. 하나은행 등 관계사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2021년 1월부터 6개월 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은 6개월 간 월 임대료 최대 50% 감면 등 업종별로 차등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도 동참했다.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월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또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월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신한은행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힘든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도심형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 18일 개장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인 제주 드림타워가 18일 공식 개장했다.

제주 최고,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 기존 가장 높았던 제주 롯데 시티호텔보다 두 배 가량 높고, 연면적(30만3737㎡)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8배에 달한다.

제주의 '강남'이라고 하는 노형오거리에 위치해 제주 공항에서 10분 거리다. 롯데관광개발은 2021년부터 5년간 7조5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외국인 방문객은 500만 명(향후 3년)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조트에는 다국적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 그룹의 브랜드인 그랜드하얏트제주가 올 스위트 1600실 규모로 들어서고 14개 레스토랑과, 국내 최고 높이의 8층 풀데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하얏트 그룹은 이곳 지역 레스토랑에 미술관 3스타 일본 셰프부터 명품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의 글로벌 총괄 출신인 벨기에 셰프 등 4명의 스타 셰프를 배치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정현우 신임 대표이사 취임



코레일관광개발의 정현우(사진) 신임 대표이사는 18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정현우 대표이사는 1982년 옛 철도청에 입사한 후 차량기술팀 단장, 광역철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현우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18일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혁신 기업, 서비스 기업 가치와 브랜드 파워 구축, 안전 제일 문화, 함께 가는 노사문화, 열린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코레일관광개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비타민D 효과로 면역력 높이고, 삶의 질도 UP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개인의 면역력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비타민D 섭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용성비타민의 한 종류인 비타민D는 튼튼한 골격(뼈)과 치아 유지에 필수성분인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빈혈 예방과 우울증 완화 및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D가 체내에서 부족하면 대표적인 골격질환인 구루병과 골연화증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커지며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및 일부 암 발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얻어지는 비타민D의 80%가 햇빛에 피부 노출로 합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빛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크고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 인구 중 약 90% 이상이 비타민D 결핍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루 20~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비타민D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지만, 햇빛에는 비타민D

를 합성하는 가시광선 뿐 아니라 과도한 노출시 피부질환 및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자외선도 포함되어 있어 낮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햇빛 노출을 통한 비타민D 합성이 여의치 않다면 적절한 식단 구성을 통한 비타민D의 꾸준한 섭취가 요구된다. 비타민D 일일권장량은 400IU이며, 한국인의 식단은 대부분 비타민D가 부족하다.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군은 '등푸른 생선류'로 대구의 간유나 붉은 연어, 참치, 고등어, 삼치 등을 섭취해 1일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목이버섯과 달걀에도 높은 함량의 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다.

혈중 비타민D가 부족한 상태라면 정상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권장되며 햇빛노출과 음식물 섭취 외에도 병·의원에 처방하는 고효량 비타민D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줌으로 혈중 비타민D 농도를 높이고 유지할 수 있다. 부천 성모병원내과 **이혜민** 원장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후유증 커져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PM 이용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44건에서 지난해 876건으로 약 3.6배 늘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짙다. 이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교통사고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 또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사고 이후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목, 허리 통증을 비롯해 손목과 무릎의 타박상, 손발 저림, 두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에 관망로 나타나지 않다가, 몇 시간 또는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서서히 나타날 수 있어 주

의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치료시기를 놓치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와 진단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방지하면 만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정밀 검사를 통해 신체 이상을 확인하고,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 알맞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한방병원에서는 근육과 인대 손상, 두통, 어깨 통증, 심리적 불안감 등의 증상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알맞은 방법을 택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양주가람한방병원 **여인우** 원장

